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김 상 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요 약

이 글은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인터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사용, 즉 프로듀시지 (produsage)의 문화적 특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 글이 탐구한 주제는, 한국의 누리꾼들이 네이버 지식iN의 '지식검색'이나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방식의 지식정보 협업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도대체 한국의 인터넷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대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글은 지식정보 문화론의 시각을 취함으로써 사회과화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적 '분석'과 '설명'보다는 문화연구에서 원용하는 '이해'와 '해석'의 시도를 벌였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이 글은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분야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역사적 전통, 즉 백과사전류 저작과 관련된 편찬ㆍ편집문화, 지식정보의 기여와 공유 및 소통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유화적 지식관과사대부들의 토론문화 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인터넷 문화, 집합지성, 커뮤니티, 한국사, 지식정보

^{*} 이 글을 집필하는 초기 단계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세 분 선생님(황주성, 민병희, 김호)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sangkim@snu.ac.kr

1. 머리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생산, 검색, 편찬, 편집, 사용, 공유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야후, 빙과 같은 글로벌 검색엔진에서부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 그리고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바로 이러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서 지식정보를 다루는 활동의의미가 크게 변했음을 엿보게 한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를 조직하고 검색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누리꾼들도 필요한 지식정보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그들의 능동적참여와 부단한 피드백이 전문가들의 생산 행위에 버금가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 협업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사용, 즉 소위 프로듀시지(produsage)1) 모델의 국가·사회별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터넷 지식정보 서비스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제공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전략 그리고

¹⁾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지식정보 관련 활동을 '생산'이라는 용어로만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생산(production)과 소비(consumption)를 동시에 행하는 자'의 뜻으로 '프로슈머(prosumer)'라는 합성 어를 제안한 바 있다(Toffler, 1980). 이와 대비하여 최근 액셀 브룬스(Axel Bruns)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지식정보 활동을 논하는 용어로서 생산(production)과 사용 (usage)의 합성어인 프로듀시지(produsage)를 제안하였다(Buns, 2008). 브룬스가 '소비'가 아닌 '사용'이라는 말에 주목한 이유는, 인터넷에서 지식정보는 물질적 재화처럼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사용'되는 비(非) 물질적 재화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인터넷 지식정보의 프로듀시지가 누리꾼 일개인의 개별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협업(collaboration)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또한 동시에 사용하는 일반 누리꾼들의 프로듀시지 활동이 국가·사회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식정보사회 연구의 글로벌한 추세도,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던 초창기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 이제는 활발한 사용의 국면에 접어든 인터넷이 각 국가·사회별로 다르게 수용되는 문화적 패턴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Castells (Ed.), 2004).

이 글이 탐구하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프로듀시지 모델이 한국의 인터 넷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 국내 학계의 연구들이 도출한 흥미로운 가설이다. 예를 들어 황주성 외(2009)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나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토론방은 활발히 이용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의 온라인 개발이나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방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며 의견을 나누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백과사전의 편집과 같은 형태의 온라인 협업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가 한국 인터넷의 사용자들에게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최항섭 외, 2007). 이러한 현실은 네이버 관련조사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터넷 시장조사기구인 컴스코어에 의하면, 2009년 7월 현재 네이버는 세계시장의1.3퍼센트를 차지하여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1.9퍼센트로 2위인 다음(17.5퍼센트), 3위인 구글 한국(3.6퍼센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전자신문』 2009년 9월 29일; 황주성 외,

2009: 55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전체에서 지식 iN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퍼센트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지식iN이 네이버를 한국 최고의 인터넷 포탈로 등극시킨 일등 공신이라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상위 30개 언어판 중에서 특정 국가를 지정할 수 없는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와 국가가 없는 카탈로니아어와 인공어인 에스페란토어, 볼라퓌크어 등의 8개 언어를 제외한 22개 언어판을 비교한 자료에서, 한국어판 위키피디아 참여율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 대비 위키피디아 이용자 수의 비율이 0.25퍼센트로 나타나서 전체의 최하위인 2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4.92퍼센트였으며, 그 다음은 노르웨이(3.48퍼센트), 세르비아(3.35퍼센트), 핀란드(3.14퍼센트) 등의 순이었다(위키미디어재단: 황주성 외, 2009: 59~60쪽에서 재인용).

도대체 한국의 인터넷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대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위키피디아가 저조한 이유로 한국어판위키피디아 사용자 집단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나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해한 작성기술과 조작방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Shim & Yang, 2009). 또 다른 설명으로는네이버의 지식iN과 같은 강력한 선점자가 버티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시장 환경을 들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창업자인 지미 웨일즈(Jimmy Wales)도 2008년에 방한했을 때, 한국에서 위키피디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식iN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전자신문』 2008년 11월 4일). 이 밖에도 경영학이나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정

부의 지원 및 규제정책의 특징에서 그 설명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과는 달리,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대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지식정보 협업모델의 저변에 깔려있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지식정보 문화를탐구함에 있어서 이 글이 채택한 것은 사회과학 방법론상으로 실증주의적 '분석'과 '설명'의 방법보다는 문화연구 분야에서 원용하는 '이해'와 '해석'의 방법이었다. 또한 이 글은 전통과 현대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지식정보 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성과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 지식정보에 대한 비교문화론의 시각을 적극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 사학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조선 중후기 유학의지식단론과 사대부 사회의 책 문화에 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다.2)

이 글은 지식정보 문화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익(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의 구성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의 분석들을 원용하였다(Leader, 2000; Hay, 2004). 이러한 분석들에 입각해서 볼 때, 지식정보의 생산·사용과 관련된 문화는 i) 편찬·편집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협업 행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ii) 협업의 성과에 대한제도적·문화적 인센티브, 그리고 더 나아가 iii)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념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

²⁾ 이 글이 취하고 있는 '지식정보 문화론'의 접근을 취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연구들을 몇 가지 거론하면, 마쓰오카 세이고(1998), 홍성욱(1999), Borgmann(1999), 김영식·정원 편(2003), 볼드윈 외(2004), Castells(2004), Castells (Ed.) (2004), 이어령(2006), 라파이유(2007), 천정환(2008) 등을 들 수 있다. 황주성 외(2009: 72~76쪽)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정보 문화론적 해석의 단초를 간략하게나마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선 후기의 지식정보 문화에 대한 탐구로는 이민희(2007a: 2007b: 2008), 정민(2004), 강명관(2007), 홍선표 외(2006), 윤병철(2006), 한정주·엄윤숙 편(2007) 등을 들 수 있다.

국사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지식정보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i) 백과사전류 저작과 관련된 편찬 · 편집의 양태 ii) 지식정보의 기여와 공유 및 소통의 제도적 메커니즘. iii) 전통적인 유학적 지식관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대부들의 토론문화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 인 터넷에서 발견되는 지식정보 문화를 구별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개념의 틀로서 지식정보의 협업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살펴보 았다. 제3장은 동서양의 역사에 뿌리를 둔 백과사전류 편집 전통의 차이 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편집문화의 특징을 밝 혀 보았다. 제4장은 지식정보의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여와 공유 및 보상의 메커니즘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 보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한 국 소통문화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제5장은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유학적 지식관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조선 사대부들의 토론문화가 현대 한국 의 인터넷 문화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글 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지식정보의 문화론적 접근이 지니는 의미를 지적하였다.

2. 지식정보 협업의 두 가지 모델

인터넷에서 협업의 형태로 벌어지는 지식정보의 프로듀시지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프로듀시지의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 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지닌 특징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념적 논의가 불가 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머리말에서 대비한 두 가지 모델, 즉 네이버 지식iN과 다음 아고라로 대변되는 모델과 위키피디아로 대변되는 모델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짚고넘어가고자 한다.

1) 집합지성 방식의 협업 모델

먼저 위키피디아 모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최근 '집합지성(集合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3)이라고 부르는 지식정보 협업 모델로 개념화된다. 집합지성이란 많은 개인들의 협업을 통해서 실현되는 지성이다. 집합지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컴퓨터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과 같이 집합행위를 탐구하는 여러 분야에서 박테리아나 동물, 인간,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적 결정의 다양한 형태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의 맥락에서 주목받는 것은 피에르 레비(Pierre Lévy)의 집합지성 개념이다. 레비가말하는 집합지성은 인류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가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

³⁾ 레비의 용어인 집합지성은 국내에서는 '집단지성(集團知性)'이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레비의 취지나, 더 중요하게는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정보 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지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여러 개체들이 집합적(collective)으로 모이는 현상을 '덩어리(mass)'나 '모임(group)'을 의미하는 집단(集團)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레비의 집합지성 개념에서 개별지성이 차지하는 독립적 위상을 고려할 때 '집단'이라는 말은 더욱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집합지성에 참여하는 개별지성들은 각기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각기 경험의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 까닭에 서로의 지식을 더 풍부한 것으로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집합지성은 개별지성들을 굴복시키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각자의 독자적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집합'을 이루는 현상을 의미한다. 집합지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최항섭(2009), 황주성 외(2009), 김상배(2010)를 참조하라.

서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보면 인류의 지식 전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레비, 2002).

웹2.0으로 대변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집합지성을 구현하는 획기적 조건이 제공되었다(리드비터, 2009). 특히 인터넷은 우리의 개별적인 지적 능력을 높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였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레비가 말하는 집합지성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일반 백과사전과는 달리 위키피디아에는 편집자가 따로 없을뿐만 아니라 항목의 집필을 위해 전문가들이 따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 누리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용을 기고하고 편집할수 있고, 이러한 기고와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백과사전이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수백 개의 언어로 작성된 수억 개의 항목들이 이러한 독특한 협업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4)

이 글의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집합지성으로 이해되는 위키피디아 모델의 몇 가지 특징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먼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을 둔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추구한다. 사실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집필자의 주장을 최소화하고 널리수용된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실제로 위키피디아는 기고와 편집의 협업 과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칙을 개발해 왔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검증가능성(Verifiability)'과 '독자적 연구 금지(No Original Research)'라는 원칙이다. 검증가능성은 자신이 기고

⁴⁾ 위키피디아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한창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초기 연구로는 Leuf & Cunningham(2001), Tapscott & Williams(2006), Rosenzweig(2006), Mader(2007)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에 위키피디아를 경험적·개념적으로 소개한 초기의 작업으로는 우메다(2006), 김국현(2006), 배영자(2008) 등이 있다.

한 항목의 주장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를 인용해야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독자적 연구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사실이나 주장, 개념 또는 이론등을 지칭하는 위키피디아의 용어인데, 이를 금지하는 원칙에 의하면 기고자 자신이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아직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거해서 위키피디아에 실리는 자료들은 객관적 지식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역으로 이미 알려져있는 지식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runs, 2008: pp.113~114).

한편 집합지성 방식 협업 모델인 위키피디아의 또 다른 특징은 '위키'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위키는 웹페이지에 접속하 면 누구나 직접 편집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를 활용하여 위키피디아는 별도로 정식의 관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다수 의 사용자들이 협업의 형태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의 편집방 식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의 모든 페이지에는 '편집'이라 는 버튼이 있는데 독자들은 누구든지 이 버튼을 통해 페이지의 내용을 집필하고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삭제할 수 있다. 위키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주어진 웹 페이지에서 편집할 때마다 바뀐 내용을 기록하면 서 수정되기 이전의 버전을 저장해 둔다. 모든 위키의 편집 페이지에 수 정의 기록들이 모두 축적되어 '히스토리'로 저장된다. 이견이 심한 경우 에는 '토론' 페이지가 모든 본문의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 간의 활발할 의 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는 결국 하나의 문서만이 게시되기 때 문에 특정 기여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 만 위키피디아에 등록해 아이디를 만들면 생기는 이용자 페이지에 해당 이용자의 기여내역이 기록될 뿐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서를 놓고 수정과 편집을 거듭해 가는 위키피디아의 모델은 최종 완성물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과정'과도 같다. 마치 그림 그리기에서의 '덧칠하기'를 연상케 한다. 액셀 브룬스는 이러한 위키피디 아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인류지식의 '팔림프세스트(palimpsest)'라고 표 현한다. 팔림프세스트는 반복적으로 지우고 다시 쓰는 고대 문서이다. 이는 주로 보존이 잘되는 양피지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 '양피지사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팔림프세스트는 그 표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전의 작업을 판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지식정보의 창작과 협업 과정 의 궤적이 드러나는 '과정' 모델이다. 이처럼 위키피디아에서는 위키 소프 트웨어를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현재 페이지뿐만 아니라 히스토리나 토론 기능 등을 통해 이전에 벌어졌던 편집의 궤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위키피디아에서는 텍스트와 창작자 그리고 사용자의 관계가 구 성되고 재구성되는 프로듀시지의 과정이 발생한다(Bruns, 2008).

2) 커뮤니티 방식의 협업 모델

집합지성 방식에 대비되는 지식정보 협업 모델로는 인터넷에서 '커뮤 니티'5) 방식으로 작동하는 협업 모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 니티 중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⁵⁾ 여기서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사회학에서 논하듯이 규범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라는 의미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서비스나 모임을 지칭하는 IT업계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장원호, 2004). 이러한 용 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무리지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칭하여 '인터넷 커뮤니티(internet community)'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웹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로 이어지는 구도의 온 라인 서비스와 검색포털이 제공하는 질문과 답변 코너,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토론방, 다양한 형태의 댓글들이 달리는 게시판, 각종 온라인 동호회와 팬클럽, 그리 고 게임 커뮤니티 등을 통칭하여 부른 것이다(김상배, 2010: 303).

이 구축한 지식정보 커뮤니티이다.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한국의 인터 넷검색 서비스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 상단에 검색창을 배치하고 검색결과를 뉴스, 블로그, 지식검색, 전문정보,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로 보여주는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정보를 찾기위해 특정 포털 사이트에 가서 특화된 검색을 한다는 생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검색엔진에 따라 이미지, 동영상, 사전, 지도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을 자신들의 사이트로 끌어들이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케 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네이버가 '지식iN'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지식검색'서비스이다. 지식검색이란 누리꾼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최항섭 외, 2007). 새로 묻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존의 유사한 답변을 검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미 제출된 답변이라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정보를 검색, 공유, 활용하면 된다. 네이버지식iN 서비스의 성공 비결은 수천 명의 누리꾼들이 동시에 올리는 수천 개의 질문에 누리꾼들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iN은 한국 인터넷의 신화를 논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인터넷 검색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검색의 차원을 넘어서 지식과 경험의 세계마저도 검색하는 지평을 열게 되었다(김태규·손재권, 2007; 임원기, 2007; 장정훈, 2007).

앞서 살펴본 위키피디아의 집합지성 방식에 대비해서 네이버 지식검색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식검색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이 주고받는 지식은 백과사전류의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식검

색에서 요청되고 제공되는 것 중 많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종류의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엄밀히 말하면 정보)에 해당한다. 맞으면 좋고 틀려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종류의 지식이고, 진위(眞僞)로 판별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호불호(好不好)로 판별되는 지식이다. 게다가간혹 선악(善惡)에 관련된 지식까지도 지식검색에 담으려고 해서 물의가발생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지식iN에 담기는 지식은 난해하고 복잡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쉬운 지식,' '부드러운 지식,' '작은 지식'인경우가 많다. 근대 과학혁명기의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지식'이라고 할 수없을 종류의 '지식들'이 '지식'으로 행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점에서 지식검색의 활성화는 무엇이 지식이냐를 판단하는 지식관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김상배 편, 2008; 최항섭, 2008).

지식정보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지식iN은, 하나의 문서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위키피디아와는 달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답변이 채택되는 문답식을 특징으로 한다. 지식iN은 질문자의 용도에 맞는지식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구하는 장점이 있다. 지식iN에서 답변이 제시되는 방식은 고정적인 텍스트 형태의 댓글들이 복수로 열거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댓글 방식에서는 다양한 답변들이 서로 간섭받지 않고 그대로 제시된다. 특히 지식iN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답변자본인만이 수정할 수 있다. 간혹 타인의 답변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댓글이 달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시간이 지날수록 수정과 보완을 통해 지식정보가 개선된다기보다는, 선별된 것과 선별되지 않은 것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혼재되어 축적된다(황주성 외, 2009).

이러한 댓글 방식은 지식검색처럼 묻고 답하는 커뮤니티 외에도 다음 아고라와 같은 온라인 토론방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된다. 고대 그리스의 회의 장소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는, 다음 아고라에서는 '아고리언'으로 불리는 참여자들이 정치, 경제, 종교, 제품 등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댓글 방식을 취하는 아고라의 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지혜가 집합되고 결집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집합・결집되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아고리언들의 주관적 견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 아고라에서의 토론은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지식iN과 같은 커뮤니티 방식의 지식정보 협업에서 나타나는 필터링 메커니즘이 지닌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iN에서는 하나의 질문 또는 약간씩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지식iN의 필터링 메커니즘은 위키피디아에 비해 다소 주관적이다. 답변이 채택되는 기준은 질문자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의 여부이다. 답변에 담긴 지식수준, 문체, 상세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채택된 답변에는 내공점수나전문가 지수 또는 추천 수 등과 같은 신용등급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보상이 채택된 답변 자체가 아니라 답변자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상의 두 가지 모델에 비추어 머리말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 방식의 협업은 활발하지 못한 반면,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아고라와 같은 커뮤니티 방식의 협업은 활성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한국의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거나 토론방에 참여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온라인 백과사전의 편집과 같은 지적 협업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터넷에서 도대체 이렇게 흥미로운 대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한국사에서 나타난 지식정보 문화의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그 대답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3. 동아시아의 '백과사전' 전통과 편찬 · 편집문화

동서양은 백과사전류의 지식정보를 편집하는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지 니고 있다. 동아시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협업의 형태로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한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 업들은 그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의 근대 백과사전과 크게 달 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이나 또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식 · 문화적 영향권 내에 있었던 한국에서 서양 스타일의 백과 사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장은 한국의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 식정보 문화의 기원을 백과사전 저작의 편찬 • 편집과 관련된 협업의 특 징적 형태 그 자체에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1) 〈백과전서〉와 중국 유서의 전통

근대적인 의미에서 백과사전6)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경우 가장 단골 로 등장하는 메뉴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디드로(Denis Dedroit)와 달랑 베르(Jean d'Alembert)에 의해서 편찬된 〈백과전서(Encylopédie)〉이

⁶⁾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영어의 encyclopedia는 en(in)+cyclo(circle)+ped(child). 즉 'encyclical education'(일반 교육, 또는 보급되어야 할 교육)이라는 뜻에서 시작 된다. 백과사전을 encyclopedia라 부르게 된 것은 디드로 등의 저서 Ency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 des Arts, et des Métiers에서 유래한 다. 물론 서양의 백과사전식 저술 자체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어 중세 이전까지 올 라간다(옥영정 외. 2010: 103쪽).

다(피노, 1993; 단턴, 1996; pp.270-301). 〈백과전서〉는 근대 계몽기의 사회변동 와중에 20여 년 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당대 지식 편집 작업의 성과이다. 디드로가 주로 편집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과전서〉는 어느 단일 저자의 작품이 아니다. 디드로와 달랑베르이외에도 볼테르나 루소 등과 같이 당시 내로라하는 다양한 저자들이 자신의 필명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내걸고 참여하여 이루어진, 그야말로 집합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시대에 등장한 위키피디아가 근대 계몽주의 시대의 오프라인 백과전서에 자주 견주어지는이유도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협업의 기원이 18세기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작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배영자, 2008).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편집 작업들이 발견된다. 물론 서양의 백과사전 작업 일반이나 18세기 계몽주의〈백과전서〉와 같은 근대적인 의미의 협업하고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서양의 백과사전과 비슷한 성격의 책은 동아시아에서 유서(類書)7)라는 형태로 발전했다. 유서는 다양한 서적으로부터 모은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해 편집한 책이다. 유서는 서적의 원본을 읽지 않고도 지식을 축적하고 교양을쌓을 수 있는 교양서 역할을 하였으며, 읽기나 쓰기를 할 때 가져다 쓸수 있는 작시작문 용례의 길잡이이기도 하였다. 또한 유서는 사실을 검색하기 위한 공구서로서도 발달하여, 문헌용어 사전(辭典)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였다(심경호, 2007: 85~86쪽). 이러한 유서는 일찍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고 동아시아 고유의 서적 편찬형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일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지식을 나열하는 방식이 요

^{7) &#}x27;유서'라는 명칭은 송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당대에 편찬된〈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는 유서를 잡가(雜家)에,〈구당서(舊唐書)·경적지(經籍志)〉에는 유사류(類事類)에 넣었다. 송대에 편찬된〈신당서(新唐書)·예문지(藝文志)〉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서류'를 개설하였는데, 이때부터 '유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최환, 2008: 16쪽).

60

즈음의 백과사전을 연상시키기도 하여 동아시아 방식의 백과사전으로 그의미를 확대해석하기도 한다(옥영정 외. 2010: 5쪽).

중국사에서 유서의 기원을 멀리서부터 찾으면, 기원전 3세기 진나라의 재상 여불위가 3천여 명의 인재들을 식객으로 모아 그들이 들은 것을 저술케 하여 편찬하고 저자거리 문에 전시하여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고 뽐냈다던 〈여씨춘추(呂氏春秋)〉나 회남왕 유안이 수천 명의 인재를 불러모아 저술했다고 하는 〈회남자(淮南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김성환, 2007). 또는 기원전 2세기 경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이아(爾雅)〉를 분류의 발상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유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유서로는 220년 위 문제의 칙령에 의해 왕상, 무복등이 경전을 분류하여 편찬한 〈황람(皇覽)〉을 든다. 황람은 그 제목이의미하듯이 황제의 열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 일반 독자나 문인 또는 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황람〉 이후 역대의 제왕들은 이를 모방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황가의 장서를 이용하여 유서를 편찬케 하였다. 이렇게 제왕의 명령에 의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된 이른바 관찬(官纂)유서는 당, 송, 명 그리고 청대를 거치면서 중국 유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최환, 2008: 21~22쪽).

당대의 가장 저명한 유서로는 7세기 초 당의 구양순이 칙명을 받고 편찬한 〈예문유취(藝文類聚)〉가 있다. 이 책은 그가 거의 혼자 힘으로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후 편찬되는 유서들의 모범이 된다. 유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발달한 것은 10세기 이후 송대의 일인데, 10세기에 이방의 책임 하에 편찬된 〈태평어람(太平御覽)〉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왕흠약 등이 어명을 받아 1013년에 편찬한 〈책부원귀(冊府元龜)〉와 음용 몽과 그의 두 아들인 음유우와 음유달이 중국 고전문헌에 등장하는 글귀들을 운자(韻字)를 가지고 분류하여 편집한 유서인 〈운부군옥(韻府群玉)〉이 있다. 명대에 나온 유서로는 15세기 영락제의 재위기간에 편찬된

〈영락대전(永樂大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옥영정 외, 2010: 111~119쪽). 한편 명대 말기인 1637년에는 종웅성에 의해 중국 재래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천공개물(天工開物)〉8)이 편찬되었다(구가 가쓰토시, 2009).

유서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청대이다. 유명한〈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은 강희제의 명으로 진몽뢰가 시작하여 1706년에 초고를 완성하였고 옹정제 때인 1725년에 장정석의 감독 하에 간행되었다. 청대에 간행된 또 하나의 중요한 유서는〈패문운부(佩文韻府)〉가 있는데, 이는 1704년 강희제의 명에 따라 장옥서가 주도하여 편찬 사업을 벌여서 1711년에 간행되었다(옥영정 외, 2010: 112쪽). 비록 유서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서양의〈백과전서〉의 편집 작업에 견주어 주목을 받는 중국의 대표적인 작업은 18세기 말 청나라 건륭제의 주도로 이루어진〈사고전서(四庫全書)〉이다. 호학(好學) 황제였던 건륭제는 1770년대부터 1790년대에 이르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책들을 집성하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당대 지식인들을 참여시켜 완성하였다.〈사고전서〉의 집대성 과정에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18세기에 이르러, 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 제국의 입장에서도 당시 확대되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가이, 2009).

이러한 중국의 유서들이 서양의 백과사전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편집

^{8) 〈}천공개물〉은 〈백과전서〉보다 한 세기 이상이나 앞서는데, 다양한 생산기술의 도구, 설비, 제조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넣어 만든 백과사전식의 상세한 기록이었다. 천공개 물이 편찬된 명 말기는 유럽의 과학기술이 물밀 듯 중국으로 유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재래 기술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중국의 기술사로 보면 전환점을 마련한 시대의 기념비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슨 이유로 중국 에서의 이러한 시도가 서양의 근대 기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야부우치 기요시, 1997: 249쪽).

의 대상과 목적에 있다. 서양의 백과사전이 일반적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저자가 직접 집필하는 방식이었다면, 중국의 유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서적 중에서 따온 기존 자료들을 분류하고 나열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어떤 유서는 기존 자료 외에 편찬자의 설명이나 고증 및 해석 등을 덧붙이기도 하지만. 그 주요 부분은 역시 기존 자료이다. 그러나 서양의 백과사전은 기존 자료들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편집자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다른 참고자료들을 동원하여 주제어를 정의하고 각 사항에 대해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 백과사전의 관건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담느냐에 있었다면, 중국의 유서는 옛 성자나 현인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데 있었다(최환, 2008: 16~17쪽).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유서 편찬의 가장 두드러진 동기 중의 하나는 지식의 수집이나 전달이 아니라 '문(文)의 보존'이었다는 점이다. 유서에 담긴 것은 '지식'으로 보는 것과 '문(文)'으로보는 것은 매우 다른 인식일수 있다. 지식의 수집과 전달에 주안점을두었던 서양의 백과사전과는 달리, 중국의 유서는 각 분야에 대한 글을모으기만 하지 절대로 그에 대해 새로운 글을 달지 않는 '술이부작(術而不作)'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서양의 백과사전류의 저작에서작(作)의 의미가 상이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文)을보존하는 주된 방법이 '유(類)'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유서가단순히 글을 모으는 데만 그쳤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새로운정의를 추가하지는 않더라도 유서의 분류 행위는 또 다른 차원의 작(作)일수 있었기 때문이다(옥영정외, 2010: 117~118쪽).

2) 한국의 유서와 편찬ㆍ편집문화

중국의 유서는 한국의 유서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는 전

래된 중국의 유서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중국 유서를 직접 간행하거나 필사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중국 유서를 초록・편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최환, 2008: 58쪽). 한국의 자체적인 유서 편찬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고려 시대에도 독자적인 유서가 나왔으리라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본격적인 유서로는조선 선조 때 권문해가 임진왜란 직전인 1587~89년경에 중국의〈운부군옥(韻府群玉)〉의 체제를 본 따서 편찬한〈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들 수 있다.〈대동운부군옥〉은 당대인들에게 익숙한 운서의 편집형식으로 만들어진 조선 백과지식의 보고라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의의를 찾는다. 그 후 17세기에 들어서 유서의 편찬이 활발해졌다. 1614년에 이수광이 편찬한〈지봉유설(芝峰類說)〉은 한국의 대표적인 유서류 저작으로 거론된다. 한편 인조 초에 이르러서는 김진이〈휘어(彙語)〉를 엮었으며, 인조 22년인 1644년에는 김육이〈유원총보(類苑叢寶)〉을 엮었고 효종 5년인 1654년에는 오명리가〈고금설원(古今說苑)〉을 엮었다(심경호, 2007: 96~97쪽; 옥영정 외, 2010: 15~18쪽).

중국 유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형 유서가 많다는 점이다. 황제의 칙명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편찬한 이른바 관찬(官撰) 유서가 대부분 이들 대형 유서에 속한다. 그러한 한국의 유서에서는 관찬 유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이 사찬(私撰) 유서라는 것이 특징이다. 예외적으로 영조 46년인 1770년(영조 46)에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있는데,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편찬한 유서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유서를 초록해서 편찬한 성격이 강했다. 사찬 유서가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규모가 방대한 유서는 적으며 소형, 특히 1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많다. 이러한 사찬 유서들은 편찬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는 편찬자가 간행할 목적보다는 가까이 두고 수시로 참고하기 위한 비망록

의 목적으로 편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환, 2008: 76~77쪽).

조선 후기에 이르면 유서는 지식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각종 유서가 신찬되었을 뿐 아니라, 저술의 체제를 정할 때 유서를 참고로 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밝혀진 한국 유서의 편찬자 중에는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영조 때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정조 때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고종 때 이유원의〈임하필기(林下筆記)등이그러한 사례이다. 한편 이러한 지식정보의 편찬과 편집 작업은 반드시유서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총서나 개인문집의 형태로 18세기 실학에 이르러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지원의〈삼한총서(三韓叢書)〉나 서유구의〈소화총서(小華叢書)〉를 들 수 있다(김영진, 2005). 이들은 모두 총서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다수 저자의 협업이 아닌 개인 문집의 형태이었다.

이처럼 한국사에서는 디드로와 달랑베르의〈백과전서〉와 같이 개별 저자들이 협업의 형태로 참여하는 작업의 전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유서인〈대동운부군옥〉도 집합지성의 형태로 개인 저자들이 필명을가지고 참여한 모델이라기보다는 권문해라는 개인의 일인 편집자 모델에기반을 두었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방대한 도서의 분류와 편찬의 전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당시 천하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조선의 처지를 미루어 보건대 거창하게 일을 벌여 마땅히 분류하고 편찬할 정도로독자적인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경에 이르면 조선에서도 당시 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지식과정보를 정리하고 집성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약용과 그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다산학단(茶山學團)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공동작업의 형태를 보여준다(임형택, 1998: 113~150쪽; 송재소, 2008: 7~24쪽),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정약

용이 유배지인 당진에서 펴낸 책들은 황상, 이청, 이강회, 정학연, 정학유 등의 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책들이 공동작업에 참여했던 공저자들이 자신들의 필명을 각기 남기는 명실상부한 공저의 형태이거나 혹은 〈백과전서〉와 유사한 형태의 작업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책은 정약용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작업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스승인 정약용이 대표저자가 되는 모델이었다. 실제로 제자들의 작업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남는 것은 스승의 필명이었으며, 제자들의 기여는 서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다산학단은, 참여저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수와 조교의관계를 연상케 하는 위계적 분업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 후기의 편집 · 편찬과 관련된 관행의 기저에는 한국의 독특한 유교적 지식정보 문화의 전통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제(師弟)의 위계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학단(學團) 내에서 또는 다른 학단들 간에 서로 다른 개별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상이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업의 형태로 작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정보 사회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 문화속에 잠재해 있는 위계적 편찬 · 편집 문화의 존재가 개별저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업방식이 오늘날 인터넷의 시대에 더디게 도입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지식정보의 기여, 공유, 보상 및 소통 문화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비슷한 형태로나타나다.

4. 지식정보의 나눔 문화와 소통문화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기여하고. 또한 생산된 지식정보를 사용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독특성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지식정보의 협업 형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정보의 기여와 나눔의 문화는 동서양에서 각기 상이한 인센티브의 전통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서양에서는 지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2 차 집단적 사회에 대한 권리(權利)라는 형태로 형성되었다면. 동아시아 에서는 1차 집단적 공동체에 대한 도리(道理)로서 이해되었다. 이 장에 서는 지적 기여와 공유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적 ·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이 오늘날의 인터넷 문화에 드리운 흔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기여와 공유 및 보상의 전통

사회 또는 공동체에 대한 지적 기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직접적 보상요인 이외에도 인정ㆍ과시ㆍ명성에 대한 기대나 순수한 이타 심, 그리고 오랜 관행이나 교육과 사회화의 효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의 단골 주제는 재 산권의 관념과 제도에 비추어 지적 작업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탐구하 는 것이다. 소위 지적 재산권의 관념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실 제로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무형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관념과 제도가 발달하여 지식정보 생산자의 기여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메 커니즘은 지적 생산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다. 특허(patent) 와 저작권(copyright) 같은 지적 재산권 관념의 등장은 이러한 메커니 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양에서 재산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관념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는 중세 말엽과 근대 초기의 일이었다(Long. 2001). 15~16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유리제조. 소금제조. 인쇄술 등을 중심으로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생겨났다. 17~18세 기에 이르러서는 지식과 시장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 한 변화를 주도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17세기 초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의 영국에서는 부족한 재정의 충당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목적으로 특허 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1624년 〈독점조례(Statute of Monopolies)〉는 이러한 특허권의 등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1709년 (앤 여왕법(The Act of Anne))으로 대변되는 저작권의 등장은 특허권과 달리 해당 산업의 요구와 압력을 국가가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요컨대. 17~18세기를 거치면서 지적 재산권의 개념은 무형의 재산에 대한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그 무형의 재산에 대한 타자의 사용 을 제한하고 또한 그 사용권을 인도할 수도 있는 법제도의 외양을 띠게 되었다(May & Sell. 2005).

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지적 생산물을 개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여기는 관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관념과 제도 가 덜 발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익명의 사회'를 상대로 자신이 생산한 지식정보 를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회문화적 인센티브의 전통이 약하 게 형성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 재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관념이 없고. 또한 무형의 기여에 대해 적절한 몫을 인정하는 메 커니즘이 없는 사회문화적 상황은 한국의 전통 지식인 사회에서 공저(共 著)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실제로 서양에서 〈백과전서〉를 편찬하는 방식과 같은 협업으로 이루어

진 공저의 작업을 한국사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앞서 다산학단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계에서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자들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전통이약하다. 기여의 정도보다는 사제관계나 연공서열과 같은 사회적 위상에의거해서 그 몫을 분배하는 경향마저도 존재해 왔다. 실제로 작업은 제자가 했지만 필자로서는 스승만 남는 문화가 있었고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각각의 기여를 엄밀하게 분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공저에 대한 편견에 가까운 인식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스승과 제자가 공저하면 스승이 제자의 글에 편승해서 이름만 올린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풍토마저도 없지 않다. 서양 학계의 경우처럼 스승과 제자 간이라도 공저에 대한 기여를 엄밀히 분별하는 기준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 한국 사회에 공저의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3 장에서 살펴본 유서의 경우를 보면 작업의 성격상 다수의 편찬자가 참여하였고 필요에 따라 공편자의 형태로 이름을 남긴 바 있다. 예를 들어, 편찬자가 밝혀진 한국의 유서 중에서 편찬자가 2인 이상인 유서로는 이가환, 이재위 부자에 의해 편찬된〈물보(物譜)〉, 정약용의 조카 정학상과 아들 정학포가 편찬한〈시명다식(詩名多識)〉, 재령 이씨 집안의 형제인 이우홍, 이우창, 이우진이 편찬한〈익도편문(翼道編門)〉을 들 수 있다(최환, 2008: 77쪽).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 공편자들이모두 부자이거나 형제 또는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엄밀히보면, 한국에서 발견되는 유서의 공동편집은 서양적인 의미의 개별 저자들의 공저라기보다는 가업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전통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저작권의 개념이나 표절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다는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강민구(2008)의 연구는 조선 지식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구명하고자, 조재삼이 편찬한 〈송남잡지(松南雜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강희자전(康熙字典)〉과 〈운부군옥(韻府群玉)〉이 인용된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표절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존재하였으며 타인의 저작을 인용할 때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인용의 관념과 양태는 서양과 같이 법제도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도였다고 한다(강민구, 2008). 다시 말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서양 근대의 그것과 등치시키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앞서 유서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이들의 인식에서 강조점이 있었던 부분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성구에서 '창신'보다는 여전히 '법고'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당시 지식인 사회의 문화를 너무 서양적 또는 현재적 잣대로만 파악하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많다. 서양의 것과 같은 공저문화가 있었느냐를 묻기보다는 비록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한국 나름의 독특한 나눔 문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사실 전통 한국사회에서도 물질적 · 비물질적 재산을 기여하고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인센티브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서양식의 기여문화나 자원봉사의 문화와는 다른 개념의 나눔과 공유의 문화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나눔 문화는 2차 집단적인형태를 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의 나눔 문화는 가족이나 이웃 등과 같은 1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가문의 덕목(德目)이나 부덕(婦德)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어령(2009)은 이러한 한국의 나눔과 공유의 문화를 '식객(食客) 문

화'와 '상물림 문화'에서 찾는다. 식객 문화는 '3덕(德)'이라고 하는 부덕(婦德)을 바탕으로 한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걸인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갖다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구 수에 '세 몫'을 덤으로 얹어 밥을 짓고 찬도 꼭 먹을 분량에서 덤을 얹어 만든다는 것이다. 옛날 농촌이 그토록 가난했으면서 각박하지 않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3덕의 형태로 존재했던 우리의 나눔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물림 문화도 이러한 덕과 도리의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장(家長)이 먹고 난 밥상을 안식구들이 물려 먹고, 안식구들이 먹고 나면 종들이 물려 먹었으며, 종들이 먹고 나면 구정물통에 모아져 개나 돼지에게 물려 먹이는 상물림의 나눔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상물림 문화에서 윗사람은 상물림을 배려해 찬을 남기는 것이 '도리'요, 아랫사람은 그것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예의'였던 것이다(이어령, 2009: 179~181쪽).

이러한 나눔 문화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전통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기여와 공유의 사회문화적 인센티브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권리의 개념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덕과 도리라는 윤리의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다산학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제 간의 공동작업에서 스승이 대표저자가 되는 것은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윗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지식문화가 존재했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의 나눔 문화가 외향적, 능동적, 참여적이라면, 한국의 나눔 문화는 내향적, 수용적, 포용적이라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서양의 그것과 구별되는 나눔 문화를 배경으로 한한국인의 전통 관념에는 내가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드러내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덕을 가지고 베풀어야 하는 규범(즉 네거티브 인센티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

올려 보자. 내가 노트 필기를 잘한다고 먼저 나서서 노트를 빌려주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누가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거절하지는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탁을 거절했다면 역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적 기여와 나눔 문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특성은 인터넷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감이 없지 않다. 자신의 기여가 불특정 다수의 전체 속에 묻혀서 그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않지만, 커뮤니티의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에서는 기여와 공유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국 인터넷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추상적 기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특정 소수'에 대한 '구체적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하다고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기여와 나눔의 독특한 방식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 모델과는 친화성이 낮지만, 네이버지식iN과 같은 커뮤니티 모델과는 높은 친화성을 지닌다고 짐작해 볼 수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한국의 소통문화와 한국인이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독특한 성격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2) 소통문화와 정체성 형성의 방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 기반의 '특정 소수'에 대한 '구체적 기여'를 선호하는 한국 나눔 문화의 저변에는 개인이 공동체와 관계를 맺 는 방식과 관련된 한국의 독특한 소통문화가 깔려 있다. 먼저 이러한 소 통문화는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방식과 그것을 제공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방식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보 다 네이버 지식iN와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한국의 누 리꾼들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신뢰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 72

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지식정보를 선호하고 신뢰하는 방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위키피디아와 같은 사이트에 실린 지식정보를 기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키피디아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게다가 좀 더 신뢰할 만한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안적 통로가 있다면 굳이 위키피디아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그러한 대안적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 지식iN과 같은 지식검색 서비스이다. 게다가 네이버 지식iN은 당장 필요한 지식과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기까지 한다. 더욱이흥미로운 것은 네이버 지식iN에서 제공되는 지식정보의 성격이 위키피디아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네이버 지식iN에서 오고가는 지식과 정보는 위키피디아의 경우처럼 백과사전류의 객관적인 지식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iN에 담기는 지식은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주관적인 지식일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보에 가까운 '지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걸러진 '객관적 정답형 지식정보'보다도 다소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주관적 경험형 지식정보'를 자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누리꾼들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주위의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지식을 좀 더 신뢰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신문이나 책에서 본지식정보보다는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친구의 추천을 더 신뢰하는 것과도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특징은 네이버 지식iN이나 위키피디아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인들이나 누리꾼 일반의 토론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사실한국 인터넷 사이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정

보를 책임지고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사이트들이 약세인 반면에, 주로 사회적 · 인간적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강세이다. 한국의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책 속에서 볼 수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싸이월드와 같은 사이트에서이루어지는 일촌 맺기형 네트워킹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토론방이나게시판에서 오고가는 내용은 객관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전문가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식인들의학술사이트 및 대중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크게 대비된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면, 한국의 누리꾼들은 2차 집단적인 세팅에서 제공되는 지식정보보다는 그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1차 집단적인 세팅에서 제공되는 지식정보를 더 선호하고 신뢰한다는 논지를 세워볼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삶의 공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지식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현실적 의식'과도 관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기여하는 대상도 2차 집단적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1차 집단적 색채를 지닌 인터넷 커뮤니티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의 선호·신뢰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 한국 소통문화 전반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동서양 커뮤니케 이션의 비교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2차 집단적 배경에서 객관적인 정보의 흐름(informational flows)을 중시하는 서양 모델과는 달리, 동아시아 모델은 1차 집단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흐름(emotional flows)을 중시한다고 한다(Ito, 1993).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소통문화도 동아시아 소통문화 전반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의 전달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74

'관계'의 교감을 중시하는 모델로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기저에는 객관적 지식의 교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까지도 공유하는 소통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한국 소통문화의 특징은 지식정보와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한국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일대다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2차 집단적인 비(非) 대면의 방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1차 집단적인 대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의 커뮤니케이션 위에 2차 집단적 방식이 가미되는 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러한특징은 한국의 이메일 문화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나를 지정하여 직접 온메일에 대해서는 답장을 하면서도 전체 메일로 여러 사람에게 회람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집단에 네트워킹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귀속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과 구체적인 방식으로 관계가 설정된 집단을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공동체(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2차 집단적인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와 동시에 좀 더 구체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1차 집단적 요소가 가미되어야만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2차 집단적 요소와 1차 집단적 요소가 복합되어 이루어지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관계를 지식정보의 소통문화에 적용해 보면, 이른바 '1.5차 집단의 소통문화'라고 개념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Ha & Kim, 2002).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소통문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이러하다 보니까, 사회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지식의 내용도 객관적・이론적 지식보다는 주관적・경험적 지식이 주류를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한국의 소통문화와 정체성 형성방식의 드러내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한국의 기여 및 나눔 문화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유학적 지식관과 토론문화

이상에서 살펴본 편집문화와 나눔 문화 및 소통문화에서 나타나는 한 국 문화의 특징은, 좀 더 근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 하는 전통적인 관념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는 조선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관(知識觀)과 이러한 지식관에 친화적인 토론 문화의 흔적이 잔잔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생각하 고 있었던 '지식'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지식관을 바 탕으로 형성된 조선 사대부들의 토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성리학적 지식관을 바탕으로 했던 사대부 토론문화의 자취 를 훑어보고자 한다.

1) 유학적 지식관의 전통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조선 사대부들의 지식관은 오늘날 우 리가 생각하는 지식관이나. 또는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가 전제 로 하고 있던 근대 서양의 지식관과는 다른 것이었다. 서양에서 근대 이 전의 지식관은 지식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인습적 사고나 종교적 권위에 의해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전근대의 지식은 애니미즘이나 신학적 세계 관에 따라 본성론 또는 목적론적으로 작동하는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종류의 지식이었다. 이에 비해 근대의 지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사물의 보편적 이치(episteme) 또는 진리(truth)를 탐구해서 얻는, 소위 과학적 지식을 의미했다. 특히 기계론적 자연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관찰, 실험, 검증, 추론 등을 행하고 이를 통해 사물간의 인과관계와 보편적 진리, 다시 말해 '사물의 질서'를 탐구하는 지식이었다.

18세기 이후 이러한 과학지식은 메타지식(meta-knowledge)의 패러 다임으로서 근대 지식관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근대 과학지식의 출현은 주체적 인간관과세속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진보'관념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Zilsel, 1946: pp.325-349). 이를 통해 지식의 탐구는 학문 전통의 단순한 전수가 아니라 지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인식되었다(Burke, 2000: pp.114). 이러한 관념은 앞서 언급한 〈백과전서〉의 제작에 참여한 근대 계몽 사상가들의 지식관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 과학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되는 합리화된 실행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다(Skolimowski, 1972: p.49; Simpson, 1995: pp.15-16).

이에 비해 유학에 기반을 두고 있던 동아시아의 전통 지식관은 서양 근대의 지식관과는 역사적으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유학적 지식 관은 '도덕적 행위의 원리'로서 이해된 지식의 개념으로 나타났다.9) 먼

⁹⁾ 이러한 지식관은 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자학과 양명학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유학적 지식관의 전통 내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지니는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자학의 지식관이 '외재하는 진리'의 파악을 추구했다면, 양명학의 지식관은 '내재하는 진리'를 드러내려 했다. 주자학의 지식관이 외재하는 '사물'로부터 이치를 구했다면, 양명학은 이치란 사물이 아닌 '마음' 속에 있다고 믿었다. 주자학에서 지식의 내용은 논리적 차원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관념적 실체라면, 양명학에서 지식의 내용은 이치의 모습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었다(윤천근, 1994: 고지마 쓰요시, 2004). 한편 중국 유학에서 나타나는 지식관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문식윤(2003), 신정근(2009)을 참조하라. 또한 주희의 지식관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저. 유학의 전통에서 지식은 '도덕'의 전제로서 이해되었는데. 이는 유학 자가 추구해야 할 지식의 대상을 한정시켜 주었다. 지식의 목적은 도덕 적 원리의 탐구라는 범주 안에 한정되었다. 또한 유학의 전통에서 지식 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인식되었는데. 지식이란 실천이나 행위에 부속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식은 별도의 체계나 설명을 갖추지 않더라 도 행위될 수 있고. 또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지식은 설명 되거나 체계화될 필요가 없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유학적 지식관의 특 징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된 지적 풍부함을 생산할 수는 있었으나. 서양의 그것에 해당하는 근대 자연과학의 지식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친화적이지 못했다(윤천근. 1994; 한국사상연구회 편. 1998).

이러한 유학적 지식관은 명. 청대를 거치면서 중국으로부터 조선으로 유입되어 '성리학적 지식관'이라는 형태로 조선 중후기의 사대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 사대부들이 생각했 던 '지식'이라 서양 근대에서 나타나는 탈(脫) 인격화된 객관적 지식은 아니라 인간의 본성 또는 존재론에 대한 지식이었다. 다시 말해 사대부 들의 '지식'이란 '사물의 질서'를 논하는 객관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질서'를 논하는 주관적 또는 간주관적 지식이었던 것이다. 조선 중후기는 이러한 성리학적 지식관을 바탕으로 하여 사대부들이 주도하는 위계적인 성리학적 지식질서의 구축이 모색되었던 시대였다(이승환, 2004; 고지 마 쓰요시. 2004).

18세기 실학에 이르러 이러한 성리학적 지식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성의 지식질서에 대한 도전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 어 주로 지방으로 유배 가 실학자들이 지방의 풍속에 대한 경험적 지식 정보를 담은 박물지류의 서적들을 펴내기도 하였으며, 임신이나 출산.

최정묵(2002). 김유형(2004). 그리고 순자의 지식관에 대해서는 김병채(1993)를 참조하라.

가사일, 염색일 등에 대한 출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학적 지식의 생산에는 주로 서울 근교의 비주류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반면,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노론 세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종류의 실학적 지식들은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뿐이라고 인식되었으며, 그러한 지식은 성리학적 지식질서에 기여한다고 생각되기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실학적 지식은 사대부가 알아야 할 '이치(理致)'는 아니었던 것이다(유봉학, 1998).

사실 이렇게 성리학적 지식을 높이고 실학적 지식을 배타시하는 태도는 사대부 세력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었다. 성리학적 지식을 지식질서의 정점에 놓음으로서 이를 다루는 사대부 세력의 지적 권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성리학적 지식관 그 자체가지배세력으로서의 사대부를 보호하는 수단을 의미했다(김용헌,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관을 수용하는 것은 사대부 스스로가 '도구적 지성'으로 전략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렇듯 조선의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지식관을 무기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시대에 서양에서 〈백과전서〉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크게 대비된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조선 중후기 성리학적 지식권력의 '성공'이좀 더 거시적인 외부의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데에는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2) 댓글형 토론문화의 기원

이상에서 살펴본 성리학적 지식관은 조선의 사대부들의 지식생산 방식에 대한 관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성리학이 상정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지식은 개인 차원의 수련과 숙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백과사전 형

태의 협업이나 편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다원적 아이디어들의 충돌 과정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는 근대 서양의 지식생산 방식의 관념과는 달리. 동아시아 인들의 관념에서 진리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단한 연구와 교 육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생산 방식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도덕적 행위의 원리'로서 지식을 이해하는 유교적 지식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지식의 숙고를 위해서는 사대부들간의 피어 리 뷰(peer review) 형태의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실 성리학적 지식은 일종의 '아고라(agora)적 지식'이었다. 성리학의 경전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전국의 유학자들이 모두 논쟁을 벌이는 모델 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대부로서의 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일종의 프로토콜로서 갖추면 누구라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이러한 사대부 네트워크의 피어 리뷰에서 살아남아 '군 자(君子)'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왕의 총애가 있다 해도, 성리학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모델이었다. 그야말로 성리학자들의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가 작동했던 것이다.

한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토론문화의 전통적 자양이 매우 풍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언론 문화가 활짝 꽃피어서, 국정 운영의 담당자들은 일상적으 로 토의와 토론을 벌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의정부나 비 변사 등의 정책 결정 기관과 언론 삼사라 통칭되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 관 등의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하여 토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또한 일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군왕과 관리 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토론이 활발했는데, 이는 성균관 유생들의 집단행동이나 전국 각지 선비들의 빈번한 상소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엄훈. 2000: 271~272쪽).

그런데 사대부들이 벌인 지식논쟁은 단순히 지식의 진위를 따지고 정리해서 공유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대부들이 주장하는 지식의 정치적 정당성과 규범적 우월성을 겨루는 성질의 것이었다. 17세기후반 조선에서 벌어졌던 예송(禮訟) 논쟁은 바로 이러한 사대부 사회의특징을 엿보게 하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논쟁 과정에서 사대부들이 주장하는 지식의 타당성은 항시 도덕적 원리의외양을 하고 주장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적 완성도와 동일시되곤 하였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폄하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고 결국 나의 학문적 미숙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지식논쟁 모델의 원형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이 벌이는 토론에서도 발견된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표출하는 다음 아고라의 경우를 보면, 정치성이 강한 사회적 의사표현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형식이 성리학자들의 논쟁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에서 등장하는 '내공점수'라는 것도 보면, 마치 성리학자들의 피어 리뷰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보는 듯하다. 특히 제공된 지식 그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제공한 사람의 '내공'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는 발상이 흥미롭지 않은가? 이러한 양태의 저변에는 객관적 지식의 교류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의 지적 능력,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의 1차 집단적 교감과 유대에 좀 더 관심을 두는 문화적 태도가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토론문화에는 개인이 전체의 공동체 속에 매몰되지 않고 개별적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난다는 사실이다. 토론의 기본적인 방향이 1차 집단적 토양을 배경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존재감이 유지되는 방식이 선호된 다고나 할까? 이는 토론 참여자들의 인식 속에 앞서 언급한 인간 본성론적 지식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소통문화를 '1.5차 집단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토론문화의 특징은 '잘된 편집이 잘못된 편집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과정 모델에 입각한 위키피디아와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된다.

사실 한국인들은 지식정보의 생산과 편집의 과정에서 자기가 행한 작업이 다른 이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방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한국 산업사회의 문화적 귀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하게는 한국 문화에 내재하는 '과정'에 대한 다른 관념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좀 더 나은 편집을 위해서 새로운 편집을 추가해 가는 것은 좋은데 '남이 자기 글을 지우는 꼴을 못 보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는 앞서살펴본 나의 지식과 생각이 바로 나의 인격을 의미한다는 성리학적 지식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혹시라도 남이 나의 글을 무단으로 고친다면 이는 나의 생각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나의 인격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모두가 다 지고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적 자존감의 기원을 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리학에 잠재되어 있는 보편주의 또는 민본주의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성(心性)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이념체계 안에서는 개별 주체들 간의 본질적인 위계서열이란 없다. 학(學)을 통하면 누구나 다 똑같고 누구나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 민(民)이 학을 하면 사(士)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士)는 위정자와 다르지 않다. 사실 이것이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성리학적 지식권력의 메커니즘 이기도 하다(민병희, 2008). 학을 통한 군자는 각각이 다 독립된 섬과도 같이 지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을 한 이는 모두가 다 도덕적

자각 능력이 있고,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성리학의 참여론을 잘 보여준다. 성리학적 기준으로 자기를 완성하면 그것이 바로 '평천하'로 통하여 공동체가 잘되는 모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모두가 '맞장 뜨는 기질'이 있는 한국문화는 바로 이러한 성리학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기여가 '편집의 과정' 속으로 묻혀 버리는 위키피디아의 방식보다는 자기가 쓴 글의 궤적이 댓글의 형식으로 남아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쓴 평과의 구별되는 게시판 토론 방식이 상대적으로 친화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이러한 댓글형의 게시판 문화는 앞서 살펴본 성리학자들의 토론과 공론 형성의 방식, 즉 주석(註釋)의 관행과 매우 친화적이다. 성리학에서 경전은 일종의 각종 담론이 올라서는 플랫폼이다.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자기의 최고 지식은 이러한 경전의 플랫폼 위에 주석을 다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자기의 이야기를 새로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전주석에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논해야 소통이 된다. 남이 쓴 글을 지우기보다는 그 경로를 남기면서 댓글을 다는 한국 인터넷의 소통방식은 여러 가지점에서 이러한 성리학의 토론과 공론 형성의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6. 맺음말

이 글은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인터 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사용, 즉 프로듀시지의 문화적 특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 글이 탐구한 주제는, 한국의 누리꾼들이 네이버 지식iN의 '지식검색'이나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 방식의 협업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글은 사회과학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적 '분석'과 '설명'보다는 지식정보문화연구의 시각에서 본 '이해'와 '해석'의 시도를 벌였다. 이러한 탐구를통해서 이글은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지식정보 분야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역사적 전통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징은 동아시아 고유의 편집문화의 전통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편집문화는 유서의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 저자가 새로운 지식을 담아 집필했던 서양의 백과사전 전통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었다. 중국과 한국의 유서는 새로운 지식의 전달보다는 옛 글을 모아서 보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게다가 서양의백과사전 전통이 다수의 저자들이 협업의 형태로 이름을 걸고 참여하여집필하는 방식이었다면, 중국과 한국의 유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저자들의 기여가 따로 드러나지 않는 문집의 형태였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유서는 새로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작(作)'이라는 관점에서 서양의 경우와는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서양의 백과사전 편집 전통에 뿌리를두고 있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 방식의 협업에 친화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징은 한국 전래의 독특한 나눔 문화와 소통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지적 기여에 대한 인 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식은 2차 집단적 사회에 대한 권리 의식의 형태를 띠는 근대 서양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차 집단적 공동체에 대한 도리 의식으로서 지적 기여의 인센티브가 이해되 84

었다. 이러한 의식은 한국의 누리꾼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 기여'에는 인색하지만,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을 상대로 한 '구체적 기여'에는 너그러운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객관적 지식을 교류하는 서비스보다는 감정과 정서까지도 공유하며 경험적 지식을 교류하는 서비스에 좀 더 친화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iN의 성공은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징은 동아시아의 독특한 유학적 지식관과 토론문화의 전통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은 과학적 지식관과 다원적 토론문화를 추구했던 근대 서양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성리학의 시각에서 지식은 도덕적 이치나 이를 추구하는 군자의 인격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지식관의 연속선상에서볼 때, 지식은 개인적 수련과 숙고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었다. 이러한지식관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사대부들의 토론은 객관적 지식의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심성적 지식의 정치적 정당성과 규범적 우월성을 겨루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아고라의 토론방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댓글형 토론의 내용과 형식은 한국의 전통적 지식관과 토론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특징을 지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에서 강조한 지식정보의 문화적 전통은 한국의 누리꾼들이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합지성 방식의 협업 모델보다는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아고라와 같은 커뮤니티 방식의 협업 모델에 더욱 더 친화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징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형성・발전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의 궤적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에도중요한 힌트를 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논의는 위키피디아나 네이

버 지식iN 또는 다음 아고라와 같은 특정 지식정보 서비스의 단편적 사 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식정보사회 전반, 더 나아가 지 식정보사회의 역사적·비교문화적 연구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가이, 켄트 (2009). 『사고전서』. 생각의나무.

강명관 (2007).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푸른역사.

강민구 (2008). 조선 후기 유서(類書)의 <강희자전(康熙字典)>과 <운부군옥(韻府群玉)> 인용 양상. <송남잡지(松南雜識)>의 경우. 『한문교육연구』 31, 533-559.

고지마 쓰요시 (2004). 『사대부의 시대: 주자학과 앙명학 새롭게 읽기』. 동아시아.

구가 가쓰토시 (2009). 『지식의 분류사』. 한국마케팅연구소.

김국현 (2006). 『웹2.0 경제학』. 황금부엉이.

김병채 (1993). 순자(荀子)의 지식론. 『중국학보』, 33, 153-163.

김상배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김성환 (2007). 『회남자: 고대 집단지성의 향연』. 살림.

김용헌 (2010). 『조선 성리학, 지식권력의 탄생』. 프로네시스.

김영식, 정원 편 (2003). 『한국의 과학문화』. 생각의나무.

김영진 (2005).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삼한총서(三韓叢書)>와 <소화총서(小華叢書)>를 중심으로.『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 판. 949-983.

김유형 (2004). 주희 지식론의 체계와 성격: '지각(知覺)'과 '격물(格物)'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65, 5-27.

김태규, 손재권 (2007). 『네이버 공화국』. 커뮤니케이션북스.

단턴, 로버트 (1996). 철학자들은 지식의 나무를 다듬는다: '백과전서'의 인식론적 전략, 『고양이대학살: 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문학과 지성사, 270-301.

라파이유, 클로테르 (2007). 『컬처코드』. 리더스북.

레비, 피에르 (2002).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리드비터, 찰스 (2009).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21세기북스 마쓰오카 세이고 (1998). 『정보의 역사를 읽는다』. 넥서스.

- 문석윤 (2003). 선진(先秦) 유학(儒學)에서 지(知)와 인식(認識)의 문제. 『철학』, 76, 31-56.
- 민병희 (2008). 주희(朱熹)의 '대학(大學)'과 사대부(士大夫)의 사회 · 정치적 권력: 제도(制度)에서 심(心)의 '학(學)'으로. 『중국사연구』, 55, 77-108.
- 배영자 (2008). 계몽주의 백과전서와 위키피디아: 지식과 권력관계의 변화. 김상배 편.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67-90.
- 볼드윈, 일레인 외 (2004. 『문화코드』. 한울.
- 송재소 (2008). 다산학단 연구 서설. 『다산학』, 12, pp.7-24.
- 신정근 (2009). 중국고대철학(中國古代哲學)에서 지식(知識)의 다면성(多面性): 인(仁) -지(知)/지(智) 통일(統一)의 문제(問題)를 중심(中心)으로. 『유교사상연구』, 35, pp.143-168.
- 심경호 (2007). 한국 류서(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 85-136.
- 야부우치 기요시 (1997). 『중국의 과학문명』. 민음사.
- 엄훈 (2000). 조선 성종대 토론 문화 연구. 유향소 복립 논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3, 269-313.
- 옥영정 외 (2009). 『조선의 백과지식: <대동운부군옥>으로 보는 조선시대 책의 문 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워.
- 우메다 모치오 (2006). 『웹진화론』. 재인.
- 유봉학 (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 윤병철 (2006). 『조선, 말이 통하다』.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처근 (1994), '지식'에 대한 유학적 논의: <대학> 해석음 둘러싼 주자학과 양명학 의 갈등. 『중국철학』. 4, pp.263-302.
- 이민희 (2007a).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 ____ (2007b). 『조선의 베스트셀러: 조선 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프 로네시스.
- (2008). 『조선을 훔친 위험한 책들: 조선시대 책에 목숨을 건 13가지 이야기』. 글항아리.
- 이승화 (2004), 『유교담론의 지형학: 근대 이후 유교 담론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푸른숲

이어령 (2006). 『문화코드』. 문학사상사.

(2009). 『생각』. 생각의나무.

임원기 (2007). 『네이버, 성공 신화의 비밀』. 황금부엉이.

임형택 (1998). 정약용의 강진 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 113-150.

장원호 (2004).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4-25. 장정훈 (2007). 『네이버 스토리: 트렌드를 창조하는 지식군단』. NEWRUN. 『전자신문』. 2008년 11월 4일; 2009년 9월 29일.

정민 (2004). 『미쳐야 미친다: 조선 지식인의 내면읽기』. 푸른역사.

천정화 (2008). 『대중지성의 시대: 새로운 지식문화사를 위하여』. 푸른역사.

최정묵 (2002). 주자(朱子)의 지식론에 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29(2), 273-297.

최항섭·김희연·김상배·김종길·배영 (2007. 『지식검색과 미래 일상생활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최항섭 (2008).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가치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이버커 뮤니케이션학보』, 25(4), 223-255.

최항섭 (2009).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287-321.

최환 (2008). 『한·중 유서문화 개관』. 영남대학교출판부.

피노, 마들렌 (1993). 『백과전서』. 한길크세주.

한정주 • 엄윤숙 편 (2007). 『조선 지식인의 독서노트』. 포럼.

홍선표 외 (2006).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혜안.

홍성욱 (1999).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문학과지성사.

한국사상연구회 편 (1998).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황주성, 최서영, 김상배 (2009). 『소셜 컴퓨팅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사회적 생산 메 커니즘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Burke, Peter (2000).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 Borgmann, Albert (1999). Holding on to Reality: The Nature of Information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uns, Axel (2008). Blogs, Wikipedia, Second Life, and Beyond: From Production to Produsage. New York: Peter Lang.
- Castells, Manuel (2004).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Ed.). (2004).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Ha, Yong-Chool and Sangbae Kim (2002). The Internet Revolution and Korea: A Socio-cultural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Booting the Miracle?

 Asia and the Internet Revolution in the Age of International Indeterminacy.

 http://www.sangkim.net/it&korea.pdf> (검색일: 2010년 8월 15일).
- Hay, Colin (2004).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Great Transform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1), 204-226.
- Ito, Youichi (1993). Mass Communication Theor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William B. Gudykunst (ed.). *Communica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49-289.
- Leander, Anna (2000).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pp.184-196.
- Leuf, Bo & Ward Cunningham (2001). *The Wiki Way: Collaboration and Sharing on the Internet.* Boston: Addison-Wesley.
- Long, Pamela O (2001). Openness, Secrecy, Authorship: Technical Arts and the Culture of Knowledge from Antiquity to the Renaissanc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der, Stewart (2007). Wikipatterns, Wiley.
- May, Christopher & Susan K. Sell (200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ritical History*. Boulder, CO: Lynne Rienner.
- Rosenzweig, Roy (2006). Can History Be Open Source? Wikipedia and the Future of the Past.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93(1).

- Shim, J. P. & J. Yang (2009). Why is Wikepedia Not More Widely Accepted in Korea and China?: Factors Affecting Knowledge-Sharing Adoption. *Decision Line*, 40(2), 12-15.
- Simpson, Lorenzo C (1995). *Technology, Time and the Conversations of Modern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Skolimowski, Henryk (1972). The Structure of Thinking in Technology. Carl Mitcham and Robert Mackey (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Readings in the Philosophical Problems of Techn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42-49.
- Tapscott, Don and Anthony D. Williams (2006). *Wikinomics: How Mass Collaboration Changes Everything*. New York: Portfolio.
- Toffler, Alvin (1980). The Third Wave. Bantam Books.
- Zilsel, Edgar (1946). Concept of Scientific Progres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 325-349.

논문 최초 투고일 2010년 10월 15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20일

ABSTRACT

Collective Intelligence or Communities?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ternet Cultur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angb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dopting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information society, examines som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ternet culture. It focuses on socio-cultural patterns of production and usage (which are closely combined as a form of *produsa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a question: while Korean netizens are very active with internet communities such as Naver's "Chisik-iN", the so-called knowledge-search engine, and Daum's Agora, an online discussion site, why are they relatively passive in participating to online encyclopedia named Wikipedia, which is known a new experimental collaboration model of collective intelligence? Why does this interesting contrast happen in the Korean Internet space?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of this paper are predicated on a unique paradigm--non-positivist approaches in cultural studies rather than positivist approaches in social sciences. Thus, it attempts to provid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rather than

92

"analysis" and "explanation"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ree aspect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re emphasized as interpretative platform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ternet communities. These three cultural traditions include i) editing and compiling culture of encyclopedia-like information projects, ii) communication and contribution cultur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iii) perceptions on knowledge and discussion culture of intellectuals in traditional Korea.

Key words: Internet Culture, Collective Intelligence, Community, Korean History, Knowledge and Information